

# 地方文化圏과 口碑傳承

— 淸州地方의 築城傳說을 中心으로 —

張 德 順  
(國文科 教授)

## 目 次

I. 序言을 대신하여	기> 傳說
地方文化圏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III. 結 言
II. 淸州地方의 山城과 傳說	女神—홀어미—英雄
娘臂城—九女城—老姑城—〈오늬힘내	余滴：女人의 치마

## I

「서울이 낭이라니(무섭다니) 果川서부터 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시골내기는 이제 서울圏에 들어 선 것이다. 果川은 冠岳山이 있다. 冠岳山이 서울特別市의 행정구역外에 있을 때에도 口碑傳承, 특히 傳說에서는 서울圏內에 있는 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風水地理說에서 서울의 案山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전설을 안고 있는 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서울의 口碑傳承〉이란 글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서울의 행정구역이 지금과 같이 擴大되기 전이었는데, 傳說이나 巫歌의 分布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의 文化圏을 설정한 바 있다.

「東은 忘憂里넘어 金谷, 北은 道峰일대까지, 南은 冠岳을 한계로 하고, 西는 津寬寺일대까지」<sup>1)</sup>

그리고 「西쪽의 高陽郡 神道面의 津寬寺入口 일대와 津寬寺, 興國寺 등은 서울市가 아니지만 口碑傳說에 있어서는 서울과 脈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文化圏內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津寬內里에는 東宮時代의 英祖에 관한 碑石이 지금도 서 있다. 이 비석의 전설은 서울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同論文 傳說篇 참조)」라고 該論致에서 해명한 바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은 모두 서울特別시에 포함되어 있다.

요새 〈首都圈뉴우스〉란 말을 放送用語에서 자주 듣게 된다. 이것도 文化圏설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地方文化圏의 설정과 그 집중적인 연구는 필요하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이 方面의 자료 수집·정리·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 좋은 예가 濟州島이다. 제주도도 이왕의 행정구역

1) 拙稿, 「서울의 口碑傳承」, ——서울文化圏의 口碑文學의 考察——, 1971, 聖心女子大學論文集.

으로는 全羅道에 속했었으나 이젠 <道>로 독립되었다. 이는 서울과 제주도의 行政區劃이 점차 歷史·民俗·口碑傳承의 특수성과 共通性에 유의하면서 재정리되어진 例로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제주대학교에서 「耽羅文化」의 창간호를 내면서

「제주도는 地理的·歷史的 特殊性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그 文化 또한 獨自性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調查研究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변모하는 社會狀況에 따라 固有한 文化와 資源이 外部文化에 밀려 소멸될 위기에 있다.」<sup>2)</sup>

고 그 序에서 지적했다. 이는 地方文化圈의 意義와 그 研究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제주도는 方言·民俗 등이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文化圈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섬(島)이라는 이유에서 기인되겠지만, 內陸地方도 이러한 특수성은 지니고 있다. 그 예로 「安東文化圈」을 들 수가 있다.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에서는 1964년부터 1966년에 걸쳐 「安東文化圈」의 學術調查를 一次計劃으로 完成하여 그 報告書를 學界에 내놓은 바 있다. 그 序文에서

「安東文化圈이란 安東地方 一圓에 對해 賦與한 名稱이다. 그것은 廣義와 狹義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좋다. 狹義로는 오늘의 行政區域으로서의 安東市·安東郡을 가르키게 될 것이고, 廣義로는 舊安東府의 管轄에 속했던 春陽·乃城·才山等 속현 및 小川·皆丹 諸部曲(以上 모두 現奉化郡)은 물론, 그 밖의 一定한 隣接地方까지를 包含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지역적 범위를 규정하고, 전통문화의 성격은 이렇게 설명했다.

「朝鮮王朝 五百年間, 이 유교국가에 있어서 嶺南은 鄒魯之鄉이라 하여 儒敎文化의 淵源地이며 儒林의 정신적 고향으로 稱道되어 왔거니와, 安東은 바로 이 嶺南文物의 中心地였다. 退溪(李滉)·西崖(柳成龍)·鶴峯(金誠一)과 같은 여러 賢哲이 이 고장의 文化를 啓迪하였고 이 先賢의 遺風속에 여러 世家家族이 境內에 基布하여 門戶를 자랑해 왔다.」<sup>3)</sup>

이 報告書는 民俗·民謠·傳說·方言·文學資料에 걸쳐 조사·수집·정리했는데 특히 口碑傳承에 주력하여 安東文化圈의 특수성을 천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地理的 範圍와 그 地方의 學問的 性格(學統이랄까)을 고려하여 地方文化圈을 설정한다면 이 밖에도 慶州一帶의 新羅文化, 朝鮮時代의 晦齋(李彥迪)의 學統을 고려한 慶州文化圈, 그리고 晉州, 大邱一帶를 晉州 文化圈이라 하여 南冥(曹植)의 學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淸州에 있는 忠北大學校 博物館에서는 中原文化圈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遺蹟을 조사·정리하여 「中原文化圈遺蹟分布圖索引」을 작년(1981)말에 出刊했다. 이 자료는 本稿를 위해 많은 참고를 제시하고 있다. 中原文化圈의 歷史的 성격과 그 範圍를 이해하기 위

2)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 創刊號, 1982.

3) 成均館大學校, 「安東文化圈學術調查報告書」, 1964~1966.

해 序文을 아래에 소개하겠다.

「中原은 中原文化圈의 發祥地이다. 三國時代에는 軍事的 要衝으로, 한때는 高句麗가 이 곳을 占有했다. 그 實證이 高句麗碑와 溫達山城등의 많은 遺蹟이 그것이고, 百濟時代에는 지금 곳곳에 散在해 있는 彌勒佛과 底圓土器와 瓦當이 이를 實證한다. 三國統一 이후의 新羅文化는 현재 가장 많은 유적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赤城碑와 中央塔과 또 中原文化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彌勒大院과 法住寺 등의 유물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北과 西로는 車嶺山脈의 支脈으로 이어지는 朴達嶺, 白馬嶺으로 뻗어 그 사이에 萬嶺山을 중심으로 忠州, 槐山, 鎭川의 小都가 稷山, 廣惠院, 水原으로 통하여 中央文化의 出入通路로 그 特有的의 文化層이 形成되어 있다. 그리고 小白山脈은 竹嶺, 鳥嶺, 火嶺으로 이어지는 支脈에는 大小寺刹과 山城이 바로 中原文化의 表象임을 보여 준다. 輔國寺를 거쳐 竹嶺으로 넘어서면 榮州와 安東文化圈에 接木되었고, 鳥嶺, 火嶺을 넘어서는 開慶과 醴泉, 尙州文化와 接木되었다.<sup>4)</sup>

이 보고서는 忠州·中原을 중심으로 하여 충북일대와 강원도, 경기도의 일부, 그리고 경상도의 奉化, 安東, 尙州에 걸친 遺物들을 조사·정리하여 사진까지 걸드린 勞作이다. 지금까지 地方文化圈의 보고가 口碑傳承에 국한되었던 것에 비해 이는 考古學, 歷史분야에 치중하였다는 데에 意義가 있다. 이는 地方文化圈研究에 커다란 자극을 주고 있다. 물론 서울地方은 이미 文化財의 조사나 정리, 그리고 市史등이 出刊되었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작업이 서울이외의 각 지방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굳이 各地方의 文化圈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地方은 地理的 與件과 歷史·風習·口碑傳承에 따라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例示한 것 뿐이다. 地方의 文化를 조사·정리하는 것은 곧 韓半島전체의 傳統文化를 정리하는 데에 기초가 되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地理志의 기록에 관심을 두었고, 고을마다 郡誌·邑誌가 發刊되어 자기고장의 文化·歷史·風習을 상세히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地方文化圈의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1981년, 일년동안 淸州에 交流教授로 出講하면서 이 地方의 口碑傳承에 관심을 갖고, 文獻조사와 現地踏査를 겸행했다. 특히 口碑文學的인 側面에서 地方的인 특수성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았다. 歷史的으로는 신라·백제·고구려 三國의 角逐地로서, 地理的으로는 車嶺·小白·蘆嶺山脈에 싸여 이른바 <삼태기>의 地形을 이루고 있어서 口碑傳承, 특히 傳說의 특수성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本稿를 草하게 된 것이다.

이미 소개한 바 있는 <中原文化圈>은 歷史·考古學的 遺蹟에 留念한 설정이지만 이른바 文化圈의 범위는 歷史·方言·風俗·口碑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면서 설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문화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方言圈이 반드시 歷史的인 범위와 같을 수도 없겠고, 口碑傳承의 地域的 특징이 歷史的 遺蹟범위와 일치할 수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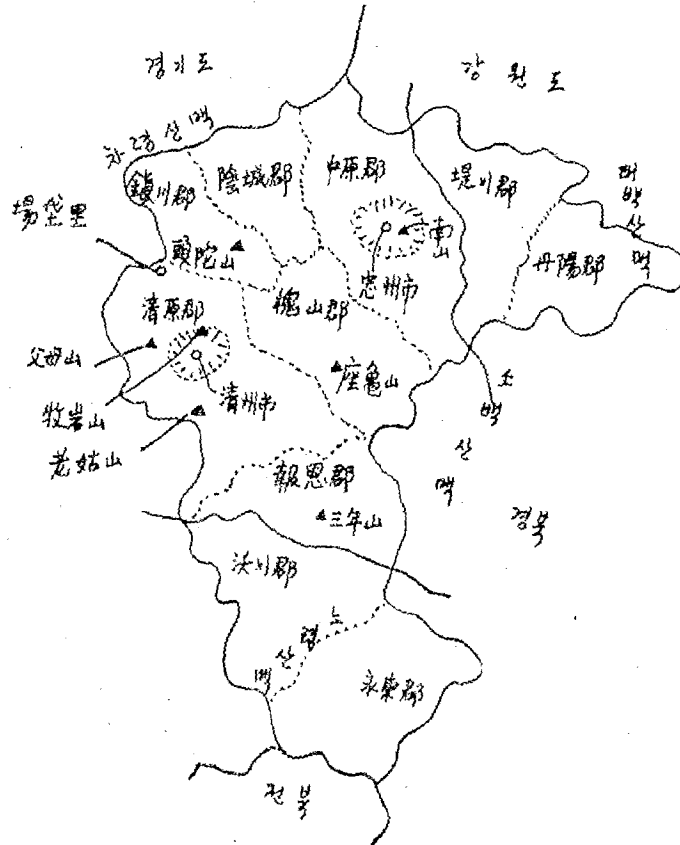
4) 忠北大學校, 「中原文化圈遺蹟分布圖索引」, 1981. 12.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淸州地方의 口碑傳承은 우선 地理的 環境으로 인해 다른 지방에서 流入한 各型의 설화가 무리를 이루어 「소복히 물려」있는 흔적이 있고, 三國의 要塞地였기 때문에 山을 이용한 山城도 이 지방에 물려 있어서 築城傳說이 발생되었고, 또 流入된 전설은 지방적인 特色을 곁들여서 變異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지방의 口碑傳承은 하나의 地方的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이 지방을 包括한 <中原文化圈>이 학계에 발표되었으므로 나는 따로 <淸州文化圈>云云하여 내세우려는 의도는 없다. 넓은 文化圈이란 울타리 안에 또 적은 地方的 特性을 고려한 「口碑傳承의 內城」(표현이 어색하지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열개의 郡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청주는 車嶺·蘆嶺山脈의 支脈과 低山地帶에 위싸여 盆地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 참고로 지도를 제시한다.

국어학분야에서는 충북의 方言區劃을 제천·단양을 「단양방언권」, 증원·괴산·청원·음성·진천을 「청주방언권」, 남쪽의 보은·옥천·영동을 「영동방언권」의 셋으로 구획하고, 그 구획의 기준은 等語線의 두께를 측정하여 두께에 따라 방언구획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현 충북대학교의 국어학 교수인 김중희 교수의 “충청북도의 방언연구”에 의한 것인데 活字로 발표되기 전에 그의 연구발표를 들은 것임)



전설의 분포 역시 청주방언권과 대체로 일치하게 된다. 地方文化圈은 方言, 民謠, 그리고 설화의 분포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그 공통성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 II

淸州地方의 歷史는 古文獻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忠淸北道誌(1975)와 淸州市誌(1976)등에 종합적으로 정리·서술되었기에 여기에서는 本稿에서 다루려는 傳說과 관계되는 歷史만을 간추려 보겠다. 이 地方은 고구려·백제·신라가 서로 出入하면서, 뺏고 빼앗기고 하는 歷史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나는 三國의 傳說과 遺蹟이 많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三國의 遺蹟·遺物은 남아 있으나 傳說은 예상밖으로 瑩성하였다. 우선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引用하겠다.

「本百濟上黨縣(一云娘臂城 一云娘子谷) 新羅神文王五年 初置西原小京 景德王 陞西原京, 高麗太祖改命名……」.<sup>5)</sup>

淸州는 百濟의 上黨이었는데, 이곳이 三國의 角逐要地였었다. 百濟의 多婁王이 이곳을 開拓하고 新羅 脫解王에게 使者를 보내어 淸州의 娘子谷城에서 會談을 제의한 일이 있다.<sup>6)</sup> 이것이 백제와 신라가 淸州地方을 사이에 두고 교섭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西紀 63年). 그 후 신라 眞興王이 娘城(淸州)에 巡狩하여 于勒과 그 제자 尼文이 音樂에 뛰어난 재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于勒을 行臨宮에 불러 가야금을 연주케 하였고(551年), 다음해에 신라는 于勒을 國原(淸州)에 安置하고 그로 하여금 階古에게는 가야금을, 法知에게는 歌謠를, 萬德에게는 舞蹈를 가르치게 하였다.<sup>7)</sup>

이로서 淸州는 처음에는 百濟의 領土였었는데 뒤에 新羅가 점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高句麗도 한때 이곳을 점유하였었다. 高句麗 嬰陽王 19年(608年) 正月 新羅의 眞平王이 隋에 遣使하여 함께 高句麗를 정벌하려는 것을 알고 嬰陽王이 二月에 군사를 보내어 新羅北邊의 娘臂城을 회복하였으니, 이 城은 바로 三國의 要塞였었다. 그러다가 신라 眞平王 51年(고구려의 榮留王 12年, 629年) 八月에 王이 大將軍 金龍春, 金舒玄, 副將軍 金庾信을 보내어 高句麗가 占領하고 있는 娘臂城을 함락시켰던 것이다.<sup>8)</sup> 이 전투에서 김유신장군이 單身으로 세 번 城內에 들어가서 勇戰하여 勝勢를 굳혔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5) 東國輿地勝覽卷之十五, 淸州牧建置沿革.

6) 「王拓地至娘子谷城 仍遣使請會不從.」 三國史記 卷二十三 百濟本紀 第一多婁王 二十六年冬十月條 「百濟王拓地至娘子谷城 遣使請會 王不行」同. 新羅本紀 第一 脫解尼師令 七年 十月條.

7) 「十二年 二月 王巡狩 次娘城 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樂 特喚之 王駐河 臨宮 令奏其樂……十三年 王命階古·法知·萬德三人 學業於于勒……業成 王命奏之 曰 與前娘城之音無異厚黨焉」 三國史記 卷第四 眞興王 十二年 三月條.

8)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第四 眞平王 五十一年 秋八月條. 同書 高句麗本紀卷第二十 榮留王 十二年 秋八月條. 同書列傳 第一金庾信 上.

娘臂城이 이처럼 三國의 要塞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地理的 與件에 基因한다고 생각되는데 아래의 글은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車嶺山脈이 江原·京畿·忠南과의 道界를 이루고, 蘆嶺山脈이 本道(忠北)의 中央部를 달리고 있어, 地理的으로 東部地方(高句麗 쪽)과 西部地方(百濟 쪽) 및 南部地方(新羅 쪽)으로 三分되었는데, 이 西部地方 米湖川流域 淸州盆地的 北東角에 娘臂城이 位置하고 있다.」<sup>9)</sup>

이 娘臂城은 반드시 傳說과 함께 지금까지 전승되리라고 믿고 나는 現地를 밝아도 보고 문헌을 뒤져보았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歷史的으로는 이 城이 現存하는 上黨山城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上黨山城이 아닌 娘臂城이 따로 있었다는 學說이 나왔다. 나는 國史가 전공이 아니기에 여기 이 方面의 說을 인용해 보겠다.

「淸州의 名稱은 三國史記에 出現할 때마다 즉 時代的으로 若干씩 달라서, 娘子谷城→娘臂城→西原(一云臂城. 一云 子谷)으로의 變化를 알 수 있는데, 이 名稱들이 모두 娘臂城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 後 娘臂城·娘子谷城 등의 名稱은 전혀 出現함이 없이, 高麗史나 世宗實錄 地理志 및 東國輿地勝覽등에도 言及되지 않다가 日帝時代의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나타난 뒤에 “全國遺蹟目錄”이나 “文化遺蹟總覽”에만 登場하였으므로 “本百濟上黨縣”의 記事와 上黨山城을 연결지어 上黨山城=娘臂城의 錯見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나는 이에 대해서 國史學者들을 만나서 직접 문의했더니 現存하는 上黨山城과 娘臂城은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들이었고, 지금 전하는 上黨山城이 百濟時代에 築造한 것도 의심스럽다는 견해였었다.

이는 如何間에 娘臂城 밑에 老姑城이 있는데 이는 「娘臂城의 副城」이었고, 또 더 南쪽에 九女城이 있는데 이 두개의 築城傳說이 나의 關心을 끌었던 것이다. 이는 <오누힘내기 傳說>의 變異型이기 때문이요, 또 이 地方에는 <오누힘내기 傳說>의 原型도 다른 地方에 비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오누힘내기 傳說是 斯界에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연구도 비교적 많이 진척되었는데 淸州地方에 국한된 연구보고는 아직 없었다.

敘述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오누힘내기 傳說의 대표형을 소개하겠다.

1. 홀어머니가 힘이 센 오누를 데리고 살았는데 오누는 서로 싸우기만 해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
2. 네기를 하였다. 누이는 집근처에서 성을 쌓고(築城), 오빠는 서울往復이었다.
3. 어머니는 아들이 이기기를 바라서 딸의 築城을 지연시킨다.
4. 누이가 敗하여 죽는다. 오래비, 어머니도 따라 죽는다.(證示物로 城이 남아 있다.)

이 기본형의 이야기는 忠北 忠州市의 南山城傳說<sup>11)</sup>을 비롯해서 이 類話가 많이 分布되어

9) 李元根, 「三國時代 城廓研究」, p. 192. 檀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10) 同書, p. 191.

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3-1, 忠北 忠州 中原篇, p. 104.

있다. 崔來沃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66話中, 忠清道가 35話, 이 중에서 忠北이 10話이다.<sup>12)</sup>(이 통계는 1981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앞으로 계속 수집될 가능성도 있다). 忠南은 牙山地方에, 忠北은 清原郡에 집중적으로 分布되어 있는데 牙山은 응봉면의 <피칼성>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清原은 여러 山城에 각각 다른 類話가 깃드려 있는 것이 특색이다. 清州地方에는 山城이 많다.<sup>13)</sup> 註에 例示한 것은 清原郡에만 있는 것인데, 이 밖의 郡에도 많은 山城이 散在해 있어서 築城傳說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오누힘내기 傳說의 보편적인 型이 앞에 제시한 것인데, 清州地方에는 특이한 變異樣相을 보이는 것이 있다. <九女城傳說>부터 살펴 보겠다.

1. 아들 하나와 아홉말을 가진 홀어머니가 山頂에 살고 있었다.
2. 生死를 걸고 내기를 했다. 딸들은 구려산성에 築城하는 동안 아들은 서울 往復을 하기로 했다.
3. 어머니의 지연(관죽)작전으로 딸들은 敗하였다.
4. 약속대로 딸들은 죽었다(九女가 성벽에서 投身). 어머니가 治葬해서 九墓가 됐다.
5. 아들은 皆骨山으로 들어갔고, 홀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남편 무덤 옆에 무치니 무덤이 11개가 됐다(證示物로 城과 무덤이 남아 있다).<sup>14)</sup>

이 전설을 提報한 사람은

「國傳되어 오는 典形的인 城趾傳說」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누힘내기 전설의 전형적 구조는 오누이가 각각 한 사람씩인데 여기에는 누이가 아홉사람이라는 것과, 오래비가 不和로

12) 崔來沃, 韓國口碑傳說의 研究, p. 410.

13) 唐義山城(臥牛山—牛岩山—牧岩山), 清州市 牛岩洞  
 琅城山城 清原郡 琅城面  
 娘臂城 清原郡 北二面  
 老姑城 清原郡 北二面  
 父母山城(母乳井) 清原郡 江西面  
 壤城山城(義僧山, 養性山) 清原郡 文義面  
 東林山石城 清原郡 江外面  
 鷲嶺山城 清原郡 梧倉面  
 長者城 清原郡 梧倉面  
 兵馬山城 清原郡 江外面  
 豬山城 清原郡 江內面  
 臺城里土城 清原郡 江內面  
 독안山城 清原郡 南二面  
 城재山城 清原郡 南二面  
 饑頭山城 清原郡 南二面  
 老姑峰山城 清原郡 芙蓉面  
 에기마위城 清原郡 芙蓉面  
 美江山城 清原郡 芙蓉面  
 將軍峰山城 清原郡 文義面  
 九龍山石城 清原郡 文義面  
 井北里土城 清原郡 北一面  
 九女城 清原郡 米院面

14) 忠清北道, 傳說誌, p. 107.

인한 희생을 누우치며 누이를 따라 죽는데 여기에서는 皆骨山으로 入山했다는 것이 다르고, 증시물로는 城이나 城趾만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딸들의 무덤까지 남아 있어서 明堂傳說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이 이야기의 提報者는 끝에 가서 「열 두 무덤은 실상은 후세에 명당을 찾아 마련된 다른 사람의 무덤인 것으로 보이니 무덤의 입자(後·孫)가 나타나지 않아 아홉딸과 외아들의 성쌍기 내기 전설을 더욱 실감있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라고 주석을 붙였다).

이 九女城은 「사실 靑羅山城으로 周廻 856m의 石城이며 地勢로 보아 北方에 대비한 山城인데 高麗城이라」<sup>15)</sup>는 것이다. 東國輿地勝覽에도 靑羅山城이라고 傳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어느 王朝의 城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靑羅>가 <高麗>인지 <高句麗>인지는 아직 未詳이나 삼국시대부터 이 城은 老姑城과 함께 娘臂城의 날개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老姑城의 傳說을 소개하겠다.

1. 壯士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두 힘센 장사).
2. 父子는 하룻밤사이에 岳(岳)를 모아 제방을 쌓았고,
3. 山神의 노여움으로 父子는 힘을 빼앗겨 平人이 되어, 父는 病死하고, 아들은 목을 매어 自殺했다.
4.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두 과부는 서로 집을 나가라고 싸우다가 山神의 命으로, 시어머니는 老姑山에 築城을, 며느리는 문주산을 허물어 田畚을 만드는 내기를 했다(시어머니는 가족치마로, 며느리는 박달산의 박달나무로 만든 널판자를 각각 연장으로 사용했다).
5. 山神은 며느리에게 동정하였다. 시어머니는 敗하여 이곳을 떠나 萬賴(現鎭川) 땅에 築城하고 살았다.
6. 證示物: 시어머가 쌓은 城을 老姑城, 옷이 울렀던 옷나무골(淸原郡 賢都面 上三里)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밤에 쌓은 岳(岳)는 月山, 아들이 흙을 등짐으로 저 올랐던 곳을 <등골>, 그가 목매어 죽은 곳을 <저목골: 上三里>이라고. 며느리의 연장(박달나무)을 얻은 山은 忠南 燕岐郡에 있는 朴山, 널판자를 만든 곳은 <내더리(內板). 燕岐郡 東面 內板에 있다.

이 이야기의 現場은 淸原郡 芙蓉面 登谷里이고, 提報者는 同面 蘆湖里 一區 吳孟秀氏이다.<sup>17)</sup> 老姑城은 俗稱 <할미城>이라고 하는데 老姑山, 老姑城의 이름을 가진 城이나 山은 全國의으로 分布되어 있다. 대개 할미(老姑)가 쌓았거나 할미와 관계되는데서 연유된 이름이다. 또 老姑는 <노고할미>라고 하여 女神의 別稱이기도 하다. 老姑城은 앞에 인용한 外에도 同郡 北二面(娘臂城 근처)에도 있고, 鎭川郡 鎭川邑 聖石里의 大母山城을 <할미城>이라 부르고 있고, 忠南 大德郡 城峙山에 老姑城이 있다(서울에도 麻浦區에 老姑山洞이 있는데 그 가까이에 臥牛山이 있어 여기에 얽힌 傳說도 있다).

위에 引用한 이야기는 壯士傳說속에 築城의 이야기가 挿入되어 있다. 오누힘내기 傳說은 「내기의 人物은 오누이, 내기의 判定은 흙어머니, 내기의 方法은 築城과 서울往復, 그리고

15) 李元根, 「三國時代 城廓研究」, p. 197.

16) 東輿, 淸州, 古跡條에 「靑羅山城, 石築 周二千七百九十尺, 內有二井, 令廢」로 되어 있다. 이밖에도 古上黨城, 父母城, 山城, 猪山城, 彌勒山城, 上鎭山城이 古跡條에 기록되어 있다.

17) 忠北, 傳說誌, p. 141.



결말은 죽음]이 主軸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기의 人物이 姑婦요, 判定은 山神, 내기의 方法은 築城과 田畚만들기, 그리고 결말은 出家로 되어 있다. 傳說은 이야기의 現場與件에 따라 모티프가 변모하게 마련이다. 山城의 필요성이 築城모티프로 되는 것은 당연하고 田畚이 귀한 곳이기에 山을 허물어서 밭을 만드는 것도 農耕生活에서 필요하다. 오늬의 경우 오래비는 「男子이기 때문에」 서울往復이 당연한 모티프이나, 여기서 며느리는 여인이 오, 또 力士이기에 그 힘을 田畚만들기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장사전설의 전체적인 主題는 築城과 農耕生活에 집중시켰다. 그 前半部의 父子力士도 「하룻밤 사이에 뒷산에서 흘러 내리는 溪谷을 막아서 제방을 쌓았고」 姑婦도 하나는 防備를 위한 山城쌓기요, 하나는 농경을 위한 田畚만들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傳說에서 의문을 남기게 하는 것은 山神이다. 처음 父子力士가 왜 山神의 노여움을 샀는지의 이유가 없다는 것과, 다음은 山神이 女性인가 男性인가가 들어나 있지 않다. 父子가 각각 아내를 데리고 있어서 질투로 두 男性을 去勢해 버렸다면 女神일 가능성이 짙다. 그러나, 姑婦의 힘내기에 있어서 젊은 며느리편을 들었다는 점에서는 男神일 가능성도 있어서 의문이라는 것이다. 현대, 老姑山傳說이라는 대전제로 볼 때엔 이 山神은 女性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結末이다. 시어머니가 내기에 敗하여 제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또 城을 쌓고 살았다는 것이다. <오늬힘내기>에서 敗者는 죽는다. 이 비극적 결말이 千篇一律의 공식(?)인데 이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다. 九女城傳說에서도 勝者인 오래비가 皆骨山으로 亡命했다. 餘他的 이야기에서는 오래비도 杼우침으로 인해 누이의 뒤를 따라 죽는다. 이와 같이 같은 지방의 두개의 이야기에서 <死>가 <生>으로 變異했다는 것인데 이 역시 地方的인 人情(?)에서 지나치게 잔인한 비극을 원치 않은 데서 연유된 것이 아닐까?

老姑城傳說은 築城, 장사전설과 연결되어 있음은 이야기의 구성상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에기장수, 소(牛)와 연결되고 또 明堂(風水)傳說과도 관계가 있는데 특히 淸州地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老姑城은 一名 <소모리, 에기바위>라고도 한다.

앞에 인용한 이야기의 提報者는 「또 한설로 아득한 옛날에…」하고 老姑山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 요약하면 이러하다.

「하늘이 老姑山의 精氣를 받은 壯士하나를 태이나게 하려고 황소에게 24개월 잉태시켜 老姑山에 보냈다. 助産을 위해 仙女를 내려보내고, 구름으로 소를 가리고 海산을 도왔다. 이리때가 와서 産母(牛)와 아이(장수)를 헤쳐려 해서 호랑이가 바위에 앉아 호위했다. 이 바위를 <에기바위>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에기산성>, <소머리바위>라고도 하며 범이 이리때를 막았다는 고을을 <범바위마을>이라고 해서 오늘날 범박골(芙蓉面 登谷里)이라고 이름지어 전해오고 있다.<sup>18)</sup>

18) 同上.

이는 英雄說話에서 영웅의 탄생과 同軌이다. 忠清道地方에는 甄萱傳說이 分布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도 甄萱의 成長과 같은 소재가 삽입되어 있다.

소(牛)의 이야기가 老姑山傳說과 接脈되어 있는 것도 特異한 變異相이다. 淸州를 상징하는 산이 牛岩山(牧牛山)이다. 市 東便에 있는 이 산도 이름에 알맞게 소의 전설을 지니고 있다. 소의 형상을 한 산의 배(腹)부분이 明堂이었다. 土亭 李之燕이 「噫呼 牛腹洞也」라고 했다는 것이다. 헌데 이 牛腹穴에 過客이 假墓를 하여 〈牛頭將軍〉이 피를 토하여 사라져서 明堂의 精氣를 잃었다. 이는 將軍穴이었는데 결국 장군은 태어나지 못하고, 현재 우암산 牧岩寺위에 〈化石墓〉가 뚜렷한 형태로 남아 있어 옛이야기를 증명해 주고 있다.<sup>19)</sup>

淸州地方은 모든 이야기의 現場, 곧 증시물이 남아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現場이 없이 浮動分布되고 있는 설화도 이곳에 와서는 어엿히 定着하고 있는 것이다. 一例로 人身供犧說話의 現場이 淸原郡 梧倉面 倉里(一名 場岱里)에 있는 것이다. 산 처녀의 祭物을 요구한 怪物(이 지방에서는 蜈蚣, 지네)과 두꺼비(처녀가 기른)의 싸움으로 祭物이 되었던 처녀는 살고, 괴물은 退治되었다는 이야기의 고장이 〈蜈蚣院〉이다. 이곳은 지금 〈梧倉〉, 〈倉말〉로 불려지는데 倉庫자리에 巨蜈이 있으면서 처녀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해서 〈오창〉인데 지금의 〈梧〉는 〈蜈〉의 音을 빌린 것이라 한다.<sup>20)</sup>

처녀와 두꺼비, 그리고 뱀(지네)의 人身供犧의 이야기는 全北 全州에도 있고, 濟州島에도 있다. 이 밖에도 많이 分布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中國南方의 傳說로 古文獻에 기록되어 있다.<sup>21)</sup> 그런데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물이 地名과 함께 뚜렷이 남아 있는 곳이 淸州地方이라는 것이다.

나는 序說에서 이 지방을 〈삼태기〉形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모든 설화가 「삼태기에 소복히」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길게 하는 곳이다.

### III

장사오뉘를 가진 女人, 그는 보통 흠어미였다. 흠어미는 〈老姑〉요, 또 〈麻姑〉라고도 하여 산을 주재하는 女神인 것이다. 山神은 남성도 있고 女神인 경우도 있다. 智異山의 〈麻姑할미〉, 漢拏山의 〈설문대할망〉은 모두 女神이었다. 〈오뉘힘내기〉傳說의 주인공은 흠어미요 이 흠어미는 곧 老姑山의 女神을 상징한다. 이 女神은 이제 그 權威를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이 大權을 계승한 者는 英雄인 것이다. 英雄은 고된 試練을 거쳐서 승리해야만 한다. 그 시련이 곧 오뉘힘내기인 것이다. 이 〈힘내기〉의 싸움은 흠어미로서는 장차 누구에게 山主宰의 大權을 인계할 것인가의 시험도 되는 것이다. 애초에는 딸이든, 아들이든

19) 同上, 〈牛岩山〉, p. 37.

20) 同上, 〈蜈蚣院〉, p. 182.

21) 拙著, “沈清傳研究”, 國文學通論, p. 235.

勝者에게 물려주려했다. 그러나 女權이 男性에게로 넘어와야 한다는 原始社會의 구조의 변화와, 人間意志의 반영으로 女神인 홀어미는 점차 아들에게 동정이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女神은 男性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高麗建國神話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麗太祖 王建의 六代祖인 聖骨將軍은 男性이었고, 또 非常人物이었다. 일찌기 그는 아홉사람의 사냥군과 사냥을 갔다가 해가 저물어 岩窟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大虎가 동굴入口에 나타났다. 이때 聖骨將軍만 살아남고, 아홉사람은 모두 죽었다.<sup>22)</sup> 聖骨將軍은 호랑이와 싸우려 했으나 호랑이는 슬슬 도망갔다. 이는 非常한 人物이었다. 그가 사냥하던 山을 주관하는 女神이 마침 과부였는데 聖骨將軍을 보고 夫婦가 되어 함께 神政을 다스리기를 원했다. 이에 聖骨將軍은 이 山의 大王이 된 것이다.<sup>23)</sup> 이 寡婦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의례히 이 山의 大王자리는 아들에게 계승되었을 것이고, 아들과 딸이 있었다면 <내기>를 시켜서 勝者에게 大位가 넘겨졌을 것이다. 그 <내기>란 <힘내기>외엔 없었다. 山을 주관하게 되니 내기의 수단은 <築城>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山(뒤에 聖居山이 되었다)의 <홀어미>는 자식이 없어서 마침 非常人인 聖骨將軍을 만났던 것이다. 母權은 이렇게 해서 男性에게 移讓된 것이다.

<오누힘내기 전설>에서의 남매는 비상한 힘을 갖고 있다. 이는 英雄이다. 英雄은 懷妊, 誕生, 成長, 爭鬪, 事業이 凡人과 다르다. <오누힘내기>의 오누는 이런 비범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出生, 成長은 없고 오직 爭鬪와 종말만이 전설에 남아 있다. 이는 각지방에 分布된 것이 한결같이 일치한다. 그런데 淸州地方의 이 전설은 懷妊, 成長까지도 포함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데에 意義가 있고, 이것이 神話연구에 좋은 단서가 되고 있다. 전설을 이야기하는 提報者는 「단설」, 혹은 「다른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같은 山城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볼 때에는 英雄의 一生이 되는 것이다.

餘滴 : 女人의 치마

築城傳說에서 의례히 女人이 城을 쌓게 된다. 그 方法은 치마에 돌을 담아서 운반한다. 뿐만 아니라 내기의 판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忠南 燕岐郡에 있는 <한치마봉><sup>24)</sup>의 전설이 <오누힘내기>인데, 여기에서는 누이가 마지막 돌을 치마에 담고 가려고 할 때에 오래비가 돌아와서 결국 지고 말았다. 이에 치마에 썼던 돌을 그자리에 쏟아놓고 自盡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도 많은 돌이 쌓여 있다. 오누의 어머니(이 地方에서는 崔致遠 先生의 妻로 전하고 있다)가 딸의 시신을 이 돌무더기 밑에 묻었다. 그래서 <崔孤雲先生令

22) 世宗實錄 地理志 黃海道 牛峰縣 : 「九龍山 在縣南 高麗國祖聖骨將軍虎景大王之祠在焉. 故 號聖居山(中略) 虎景與獵者九人 入山中擊獸 會日黑 就岩竇宿 有虎至當竇口大吼 九人相謂 虎必欲噬我輩中一人 必有當之者 請各投筭虎前 虎所噬即其人也 於是皆投之 虎乃噬 虎景出 欲與虎鬪 虎不見而竇崩 九人皆壓死 而虎景獨生 故名九龍 令令所在官春秋行祭」

23) 東國輿地勝覽 卷四十二 牛峰縣山川 <聖居山>條. 「…先祀山神 其神見曰 予以寡婦主此山 幸遇聖骨將軍 欲與爲夫婦共理神政 請封爲此山大王 言訖 俱聖骨俱隱不見 郡人因聖骨爲大王 立祀祭之」

24) 拙稿, 「崔致遠과 說話文學」, 아카데미論叢 4輯 參考.

愛의 무덤)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積石塚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 이것을 <嫻致摩峰> 이라고 하며 이는 築城을 위한 마지막 한 치마의 돌로 이루어진 積石峰이라는 뜻이다.

이미 인용한 淸州의 老姑城傳說에서도 돌운반의 수단으로 <가족치마>를 사용했다. 山神은 머느리를 이기게 하려고 시어머니의 가족치마를 트더지게 해서 築城의 完成을 지연시켰다. 시어머니는 트더진 치마를 꼬매다가 진 것이다. 이것도 <내기의 결판>에 치마가 절대적인 구실을 했다.

全南 淳昌의 <홀어미城>의 전설은 호래비가 美貌의 寡婦에 請婚하는 조건으로 築城내기를 하다가 女人이 敗했다. 그 이유는 과부가 築城은 '완성했는데 치마에 묻어 있는 먼지를 깨끗이 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과부는 곧 자살하고 말았는데 치마를 털지 않은 것이 일의 未完成이라는 것을 自認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걸어올린 치마를 내리지 않아서 내기에 진 경우도 있다.

女人의 치마는 이렇듯 중요한 구실을 한다. 幸州山城의 전설도 女人의 치마로 大捷을 이루었으니 말이다. 치마는 女人을 상징하는 옷이면서 女人의 생명과도 같다.

智異山의 女神 <마고할미>도 치마를 입었을 것이다.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은 치마를 입어보지 못한 슬픈 女神이었기에 제주도는 영원히 섬으로 孤立해야만 했다. 女神이 있다는 靈山에 안개가 낀 것은 마치 치마를 두른 것 같이 神秘롭다. 이미 이야기한 老姑山의 소(牛)가 장사를 해산할 때에도 구름이 가리었다고 했는데, 이 구름도 치마의 구실을 했던 것이다. 姪婦가 不時에 意外의 장소에서 해산할 때에도 치마로 가린다. 치마는 가리는 구실을 하면서 운반의 수단으로 쓰이고, 또 여성의 美를 돋보이게 하기도 한다.

## Local Cultural Area and Oral Transmission

—Giving a focus on a folk tale in the Chongju region.

Duk-Soon Chang

1. The specialty of a local culture is determined by history,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orally transmitted folk tales of the region. A geographical area which has cultural similarities could be called a cultural area, for example, the Seoul Cultural Area, the Andong Cultural Area and so on.
2. This article is to find out some cultural specialty of Chongju region in Choongbuk Province, through studying folk tales of the region. There are many relics and remains of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since the region was once an arena of heavy competition among the Three Kingdoms. Famous are the mountain fortresses among them. And there are many folk tales related with these fortresses.
3. In this paper the folk tales related with the mountain fortresses are called "hill-fort legends". Among them a tale of "A Brother and Sister's Hard Effort", which is about a mountain's Goddess and her son, a heroic Hercules, is selected out and studied intensively since it is a good source for studying a myth.
4. Some folk tales of other regions were also distributed in this area with some revision. They were changed in a way to fit to history and the customs of this region. So we could designate Chongju area as a special region in terms of folk tale.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study of library research and orally transmitted tales, giving special attention to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